

우리

갈기갈기 찢어져 제 살덩이를 공중에 빗방울처럼 흩뿌리는
우리가 이 문명화된 세상에 사는 모든 이에게, 모든 남자와 여
자와 아이들에게 심심한 사과를 말을 전합니다. 고의는 아니
었다 해도 감히 허락도 없이 여러분의 평화로운 보금자리에
불쑥 출몰했으니까요. 눈처럼 새하얀 여러분의 기억에 우리
의 절단된 신체 부위들을 새겨 넣었다니 사과드릴게요. 여러
분의 눈에 비친 정상적인 인간, 온전한 인간의 상을 훼손하고,
피와 검게 탄 뼈만 남은 나체로 인터넷과 신문의 각종 속보와
지면에 부지불식간에 출현하는 무례를 범했으니까요. 감당 못
할 충격이 두려워 우리가 입은 부상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도
없었던 모든 이에게, 텔레비전을 보다가 우리의 적나라한 이
미지를 예기치 못하게 마주하고는 입맛을 버린 이들에게 우리
는 사과를 말을 전합니다. 우리를 본래 모습으로 되돌려놓거
나 우리의 잔해를 다시 짜맞출 시도를 일절 하지 않은 탓에 조
금도 윤색하지 않은 우리를 텔레비전 화면에서 목격하고 고통
받은 모든 이에게 사과를 말을 전합니다. 우리를 낱알이 찢어
발기기 위해 비행기와 탱크 조작 버튼을 누르는 수고를 마지
않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도 사과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연약
한 머리를 향해 날린 탄피와 폭탄에 맞아 험한 꼴을 보인 일에
대해서도, 그들이 잠을 청하려 할 때마다 흉측한 신체 부위들
로 바뀐 우리 존재가 눈앞에 얼얼거리 이제 전처럼 다시 인간
이 되겠다고 정신과에서 수 시간을 보내게 만든 일에 대해서
도 유감을 표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화면과 지면에서 본 것
들입니다. 파편처럼 흩어진 우리의 살덩이를 퍼줄 맞추듯 애
써 이어 붙여 보면 우리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겠죠. 너무
도 선명해 결국 아무것도 못 할 테고요.

가야트 알마둔

2008

가야트 알마둔

° 번역 양미래

캐서린 코범이 영어로 옮긴 알마둔의 시집 『아드레날린』 (액션 북스 2017)에 실림

Ghayath Almadhoun